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최근 인사동의 한 서점에서 ‘서계 박세당의 필첩’이라는 현책을 한 권 샀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지러운 서가에서 이상하게 한눈에 띄는 책이다.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내가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다. 서계의 시문은 물론 문인(門人) 등에게 보낸 간찰을 수록한 책에는 그의 2남 정재(定齋) 박태보(朴泰輔, 1654~1689)의 편지도 몇 점 실려 있었다. 정재는 인현 왕후 폐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친국과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36세로 숨진 사람이다. 생애는 짧았지만 형 백석(白石) 박태유(朴泰維, 1648~1686)와 함께 우리 서예사에 빛나는 그의 필적은 유려하고 시원시원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글씨가 비슷해 보이기도 했다. 실상 내가 서계에 이끌린 이유는 노장철학에 밝았으며 주자학을 비판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렸다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안타깝고 애타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두 아들을 앞세우는 참칭(慘戚)을 당한 아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

비지였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불의를 견디지 못했던 큰 아들 태유도 합당한 벼슬살이 끝에 일찍 병사했다. 서계와 정재의 일화는 천재들의 대결처럼 재미있으면 서도 부자 사이가 어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글에 대해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과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보다 아래라고 평가하자 서계는 “네가 나를 너무 가볍게 본다”고 섭섭해 했다. 서계의 처남인 남구만은 박태보에겐 외삼촌이었다. 마당의 살구 개수를 놓고 내기를 했다가 아들이 틀렸다고 꾸짖자 아들은 나뭇잎에 가려진 것 하나를 기어이 더 찾아내 아버지를 이겼다. 심노송(沈魯崇, 1762~1837)의 ‘자저실기’(自著實記)에 의하면 서계와 정재는 사사건건 서로 겨주는 법이 없었다. 충청도 소사 지역의 비석이 길의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한 일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 서계는 조선의 여느 남자들과 달리 자식 사랑을 감추지 않고 표현했던 사람이다. 아내를 잃었을 때 어머니 산소를 지키며 효성을 다하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해 “아침저녁으로 소리 내어 울고 곡하는 것도 그만두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곡하고 우는 데 달려 있지 않다”고 편지로 말린 사람이다. 모친 고문을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귀양길에 오른 정재는 한강을 건너 노랑진에 닿았을 때 더 가지 못하고 사육신 사망 아래에서 숨졌다. 아버지 서계는 그때 “어찌하겠느냐. 그저 조용히 죽어 마지막을 빛내라”라

며 어루만졌다. 아들 정재는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대답했고, 아버지가 올면서 나간 뒤 숨이 끊어졌다. ‘연려실기술’의 기록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 부자간의 마지막 모습이 그림처럼 떠올라 가슴이 아리다. 큰아들을 잃은 지 3년 만에 작은아들을 잃고, 서계는 그로부터 17년을 더 살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두 아들의 강직함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는 꺾이지 않는 두 아들을 보며 늘 마음 졸이며 살았다. ‘한비자’에 지자막여부(知子莫如父)라는 말이 나온다. 아들을 아는 데는 정말로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을 까? 가부장적인 전통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와 집안의 위계질서를 지탱해 주는 금언처럼 작용해 온 말이다. 서계는 겨우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원주·안동·청주·천안 등지를 전전하다가 열세 살 때 고모부로부터 글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걱정이나 아버지로서의 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아버지들 중 ‘지자막여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박세당 부자의 일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경우를 돌아본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이해를 받고 살았으며, 지금 나는 두 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비슷한 듯 서로 전혀 같지 않은 부자의 필적을 살펴보면서 고금의 일과 인간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청춘 특특



조서희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2학년

“넷플릭스 추천해 주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추천보다 넷플릭스(Netflix) 혹은 왓챠(Watcha)를 추천해 달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지금, 극장은 관객 75% 이상을 잃었지만 넷플릭스와 왓챠, 티빙(Tving) 등과 같은 OTT 서비스의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OTT 서비스란 ‘Over-The-Top’의 줄임말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한국말로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 불린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물론 정기권을 구매하는 유료 서비스지만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무료 기간에 마음껏 콘텐츠를 즐기며 맛보기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족 플랜(Plan)이라는 정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춘추전국시대’

권을 구매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명이 한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OTT 서비스의 대표 주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넷플릭스’를 꼽을 것이다. 1997년 마크 랜돌프와 리드 헤이스팅스가 설립해 미디어 대어 서비스로 시작, 2000년대 중반부터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6일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넷플릭스는 기존에 자신들이 서비스하고 있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앞세워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이내 한국에서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 왓챠, 국내 드라마와 TV 방영 프로그램을 앞세운 티빙과 같은 자국 서비스가 등장했다. 현재는 카카오투V, 옥수수, 웨이브 등 많은 국내 OT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Disney)는 자신들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디즈니 플러스’(Disney Plus)를 론칭했으며 IT 기업인 애플(Apple)은 ‘애플 TV+’(Apple TV+)를, 유튜브(Youtube)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을 가입하면 ‘유튜브 오리지널’(Youtube Original)이라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해놔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적 전자 상업 회사인 아마존 또한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OTT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지금 ‘콘텐츠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를 만큼 포화 상태에 달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OTT 서비스의 다양화가 좋게만 느껴졌다. 다양한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감상할 수 있고, 더 이상 외국 콘텐츠를 어떠한 회사가 판권을 사 와 자막을 제작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 서비스가 늘어갈수록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만 늘어나게 됐다. 처음에는 한두 곳만 결제하면 거의 모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었던 OTT 서비스가 A방송국의 드라마는 A에서만 감상이 가능하고 B제작사의 영화는 B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이제 마음껏 콘텐츠를 감상하려면 여러 곳에서 수만 원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보기 싫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용자뿐 아니라 제공 회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 통신기업들의 경쟁 때문에 론칭 시기가 늦춰져 혼란만 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일반적으로 질적 상승과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OTT 서비스는 이와 같은 장점보다는 혼란스러움과 단점만을 보여 주고 있다. 하루빨리 기업들의 협력과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OTT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기 고



김만수
광주북지연구원장

세대를 호칭하는 용어 가운데 ‘MZ세대’와 ‘AZ세대’가 있다. MZ세대는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총칭하는 것으로 흔히 청년층을 말한다. AZ세대는 코로나19 이후 생긴 신조어다. MZ세대와 같이 영문이 Z로 끝나면서도 의미는 정반대로 노년층을 일컫는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창기에 주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60세~74세에 배정되면서 노년층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MZ와 AZ세대 사이에 낀 중장년층의 호칭은 무엇이 있을까. 영어로 만든 멋진 신조어는 없고 ‘5060세대’라거나 ‘신중년’ 정도로 불린다. 우리 사회의 중추 세대로 한창 일할 나이이면서도 정년 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이 여기에 속한다. 신중년은 막 퇴직을 했거나 조만간 퇴직을 앞뒀 생애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 정책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조사(2020년, 통계청)를 보면 퇴직 평균 연령은 49세이지만 은퇴 희망 연령은 72

‘빛고을 50+센터’를 아시나요?

세로 23년의 간극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신중년들의 최대 관심은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 신중년층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는 서울시가 꼽혔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체제 출범 후 민간 위탁 형식으로 ‘이모자지원센터’를 운영해오다 2016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으로 독립시켰다. 만 54세~64세를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 정보 프로그램 제공 등 통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부 형태의 4개 캠퍼스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캠퍼스가 없는 지역에는 10개의 센터를 만들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 울산, 부산, 인천도 이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지 차원에서 신중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대세인 듯 싶다. 신중년층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 정책은 이들 자치단체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먼저 광주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복지재단(현 광주복지연구원)이 2017년 ‘베이비부머 생활 실태와 노후 준비 방안 연구’를 통해 중년층 지원에 관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신중년층에 대한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 ‘빛고을 50+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4년여의 준비 끝에 빛고을 50+센터가 26일 동구 옛 학동 119안전센터 자리에 정식 개관한다. 센터는 광주 지역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 지원 타깃은 만 45세~64세대. 광주에 거주하는 이 연령대 인구는 45만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31.7%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센터는 이들의 일자리, 건강, 재무 관련 상담은 물론 지역 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교육, 취업·창업,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노후 준비 교육, 문화·여가·공익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복지연구원은 올 초 광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빛고을 50+센터를 광주 중년층 정책 지원의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복지연구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노인복지 허브 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해 왔다. 광주시와 연구원은 이들 타운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해 빛고을 50+센터 본소를 두 타운에는 물론 광산구까지 세 곳에 확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빛고을 50+센터 운영으로 광주복지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광주 복지의 허브 기관으로 위상을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광주 지역 신중년은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된 사회·경제적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와 노후 설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빛고을 50+센터가 이들 신중년들이 인생 2막을 꾸꾸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社說

백신 접종 70%…빠앗긴 일상 다시 찾는다

코로나 백신을 2차(얀센 백신은 1차)까지 모두 접종받은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섰다. 접종 완료율 70%는 집단면역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다. 방역 당국은 “23일 오후 2시까지 국내 누적 접종 완료자는 3594만5324명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감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651일 만에 그 이전에는 당연시됐던 일상 대부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단 내달 1일부터 1단계 개편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노래연습장이나 목욕탕, 실내체육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2단계 시행 때는 행사 인원 제한이 풀려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지고, 유흥시설도 시간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24일로 예상되는 위드코로나 3단계 때는 사적 모임 제한까지 해제되는 등 사실상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 높은 접종률을 믿고 방역 조치를 급격히 풀어 버린 유럽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예산 전쟁’ 광주·전남 국비 확보 차질 없도록

여야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5일과 8일 종합 정책 질의를 거쳐 9~10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5~22일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철저한 심사를 버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광주시와 관련된 국비는 3조 1457억 원, 전남도는 7조 5131억 원이다. 올해보다 각각 3800억 원, 330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상당수 현안 사업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의 경우 37건에 1193억 원, 전남은 33건에 1조 377억 원의 추가 반영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은 정부안에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 국비를 되살리거나 증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 지역 지원에 신경 쓰면서 추가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에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이란 모임이 있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요구했던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 그룹을 얘기한다. 후단협은 그 결성 배경에 노무현 후보 교체라는 숨은 의도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당 행위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는 후단협의 노림수에 대해 진정성을 무기로 정면 돌파, 단일화 승부에 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기적과도 같은 정권 재창출을 이뤘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개나리 대선’은 5% 안팎의 차이가 나는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만간 대권 도전 선언에 나설 참이고 제3세대 주자론을 내세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신당(‘새로운 물결’)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다. 여야를 넘어 진보와 보수 진영 주변에 일정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이들 후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차기 대선 정국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주자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론’을 강화한다면 민주당도 정의당과의 연정(연합정부) 등을 매개로 진보 진영의 ‘정권재창출론’으로 맞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정치적 DNA가 다른 정당 대선주자들 간의 인위적 후보 단일화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의 퇴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치공학적 접근을 민심이 그대로 받아줄 것인지도 미지수다. 어찌됐든 차기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다. 위기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리더도 필요하지만 대선주자들의 진정성과 비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적 집단지성도 요구된다. 불확실성의 시대 극복은 대선주자들의 영역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개나리 대선에 차익을 뽐아야 하는 최악의 대결 구도를 넘어 국민적 지지가 한 데 모인 가운데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의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